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

이외선¹, 김미정^{2*}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²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Lee Oi Sun¹, Kim Mi Jeoung^{2*}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Moon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C시와 K시 소재 2개의 종합병원의 졸업직후 신규간호사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피어슨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감성지능은 비판적 사고능력($r=.62, p<.001$), 임상수행능력($r=.6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3.88, p<.001$). 그러므로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능력 뿐만 아니라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임상수행능력, 졸업직후 신규간호사,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among new graduate nurses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Subjects were 181 new graduate nurses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in two general hospitals in C city and K city.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February 27 to March 30, 2017.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d Sobel test to test the significance of a mediation effect using SPSS 23 software. Emotional intelligenc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r=.62, p<.001$) and clinical competence($r=.60, p<.001$) in new graduate nurses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Emotional intellige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which showed significance in Sobel's test($Z=3.88, p<.001$). Theses results indicated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clinical competence of new nurs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test the program for improving not onl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ut also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New graduate nurses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Mediating Effect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angshi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7(과제번호 창신 2017-교내-28)

*Corresponding Author : Kim Mi Jeoung(01dkwnaak@hanmail.net)

Received May 3, 2018

Revised May 31, 2018

Accepted June 20, 2018

Published June 28,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의 달성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역량이다. 임상수행능력은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직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필수요건이다[1]. 간호사의 높은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는[1] 반면, 임상수행능력의 결여는 간호현장의 부적응을 가져오고 이직을 초래하게 되어 병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2].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무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 전문직 기술 및 의사소통기술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영역으로 궁극적으로 간호학 학습성과 성취와 깊은 관련이 있다[3]. 그러나 간호학과를 졸업한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의료기관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3]. 선행연구[4]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신규간호사는 6개월 이후에 어느 정도 임상의 적응단계에 이르는 하나 여전히 임상수행능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간호직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4]. 이에 임상현장 관리자들과 간호대학 교수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규간호사가 임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며[4], 졸업 직후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선행연구[4]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예측요인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나[4]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능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지식, 기술과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와 성향인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5].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주의 깊고 정확한 평가나 판단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의사결정이 가능해져[5]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강화시켜 임상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5]. 비판적 사고능력은 간호학 학습

성과 중의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로 간호교육현장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 수업, 팀 기반 학습, 액션러닝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다. 간호교육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상실습 중 대상자의 권리보호 등의 이유로 직접간호수행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대상자와 의료인 간의 효율적인 치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질적·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성지능이 꼭 필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감성지능이 간호교육과 간호실무에서 비판적 사고능력과 근거 기반 수행에 영향을 미쳐서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고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 감성지능이 높은 경우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조절하여 임상수행능력의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의 행동적 구성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7].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7]에서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간호교육현장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향상시켜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 세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 간에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는 없는 상태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마친 후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의 학습성과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졸업직후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졸업 후 입사한 종합병원에서 오리엔테이션 중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 세 변수의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의 학습성과 달성정도를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하

여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와 K시 소재 2개의 종합병원에 신규간호사로 채용된 후 오리엔테이션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적합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7]를 기반으로 효과크기를 .25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9로 설정하여 G-Power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을 때 164명으로 계산되었다[8].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한 18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조사지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전공 만족도, 업무수행자신감, 스트레스 정도, 간호직 재직예상기간 등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감성지능

Wong과 Law[9]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도구를 Hwang[10]이 번안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총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고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은 하위요인별 4 문항씩, 감성조절은 3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3.2 비판적 사고능력

Yoon[1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개 하부영역으로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3.3 임상수행능력

Lee 등[12]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도구를 기초로 Choi[13]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가지 영역을 측정하여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간호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총 4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잘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 한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2]이 개발할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Choi[1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제 변수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4]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여성 169명(93.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은 22세에서 24세가 152명(84.0%),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24명(69.5%)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수행자신감과 스트레스 정도는 0~10점 시각적 상사척도로 측정된 후 낮다, 중간이다, 높다 세 분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업무수행자신감은 평균 5.85점, '보통이다'가 91명(50.3%)로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5.95점,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가 79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직 재직 예상기간은 5년 이상이 113명(62.4%)로 가장 많았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1)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12(6.6)	
	Female	169(93.4)	
Age (year)	22-24	152(84.0)	
	25≤	29(16.0)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Dissatisfied	7(3.9)	
	Neutral	50(27.6)	
	Satisfied	124(68.5)	

Clinical performance Confidence	High(7~10)	68(37.6)	5.85±1.95
	Middle(4~6)	91(50.3)	
	Low(0~3)	22(12.2)	
Current Stress	High(7~10)	79(43.6)	5.95±2.07
	Middle(4~6)	77(42.5)	
	Low(0~3)	25(13.8)	
Estimated duration of employment	1~<3	8(4.4)	
	3~<5	36(19.9)	
	5≤	113(62.4)	
	unknow	24(13.3)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감성지능 정도는 평균 5점 만점에 3.70점이었고 하위 영역으로 타인감성이 3.81점으로 가장 높고, 자기감성 3.77점, 감성활용 3.69점, 감성조절 3.52점 순이었다.

비판적 사고능력 정도는 평균 5점 만점에 3.61점이었었다.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5점 만점에 3.65점이었고 하위 영역으로는 간호교육/협력관계 3.71점, 대인관계/의사소통 3.71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직 발전 3.70점, 간호기술 3.62점, 간호과정 3.54점 순이었다(Table 2 참고).

Table 2.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N=181)

Variables	Categories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Total	3.70±0.47
	Self- emotional appraisal	3.77±0.60
	Others' emotionals appraisal	3.81±0.58
	Regulator of emotionals	3.52±0.61
	Use of emotionals	3.69±0.6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otal	3.61±0.47
	Total	3.65±0.49
	Nursing process	3.54±0.52
Clinical competence	Nursing skill	3.62±0.55
	Teaching /Collaboration	3.71±0.56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3.71±0.57
	Professional attitude	3.70±0.54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참고).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1)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4.03±0.57		3.88±0.71		3.97±0.52	
	Female	3.68±0.46	2.53(.012)	3.53±0.43	2.57(.011)	3.63±0.48	2.36(.019)
Age (year)	22-24	3.65±0.45	-2.83	3.50±0.45	-2.94	3.63±0.47	-1.06
	25≤	3.92±0.51	(.005)	3.78±0.49	(.004)	3.73±0.58	(.289)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Dissatisfied ^a	3.39±0.36		3.43±0.39		3.31±0.33	
	Neutral ^b	3.52±0.40	1.65(.001)	3.40±0.36	.85(.019)	3.49±0.46	1.45(.002)
	Satisfied ^c	3.79±0.48	c>b>a	3.61±0.49	c>b>a	3.73±0.48	c>b
Clinical performance Confidence	High ^a	3.92±0.49	2.97	3.74±0.50	2.03	3.46±0.46	
	Middle ^b	3.59±0.37	(<.001)	3.43±0.38	(<.001)	3.49±0.42	3.91(<.001)
	Low ^c	3.45±0.52	a>b	3.42±0.50	a>b>c	3.46±0.05	a>c
Current Stress	High ^a	3.64±0.45		3.47±0.42		3.54±0.42	
	Middle ^b	3.68±0.48	.86(.021)	3.58±0.47	.63(.055)	3.70±0.53	.95(.018)
	Low ^c	3.94±0.46	c>a	3.71±0.51		3.82±0.47	c>a
Estimated duration of employment	1<3	3.61±0.50	.10(.704)	3.62±0.60	.12(.640)	3.69±0.74	.47(.117)
	3<5	3.65±0.31		3.46±0.34		3.49±0.42	
	5≤	3.73±0.49		3.56±0.47		3.71±0.04	
	unknow	3.65±0.57		3.58±0.55		3.58±0.50	

감성지능은 남학생(t=2.53, p=.012), 나이가 많을수록 (t=-2.83, p=.005), 업무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F=2.97, p=.001),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F=.86, p=.021) 감성 지능이 높았다.

비판적 사고능력은 남학생이(t=2.78, p=.006), 전공에 만족할수록(F=1.65, p=.001), 업무수행 자신감이 높을수록(F=2.03, p<.001) 높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남학생(t=2.36, p=.019), 전공에 만족할수록(F=1.45, p=.002), 업무자신감이 높을수록(F=3.91, p=.001), 스트레스 정도(F=.95, p=.018)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3.4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능력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r=.62,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 (r=.6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r=.7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참고).

Table 4. Correlations of among Variables

(N=181)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p)	Clinical competence r(p)
Emotional intelligence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62(p<.001)	1	
Clinical competence	.60(p<.001)	.74 (p<.001)	1

3.5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14]의 3단계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비판적 사고능력이 매개변수인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60, p<.001), 설명력은 36.4%였다. 2단계로 독립변수인 비판적 사고능력이 종속변수인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71, p<.001). 설명력은 51.7%였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비판적 사고능력과 매개변수인 감성지능을 동시에 종속변수인 임상수행능력에 회귀한 결과, 비판적 사고능력(β=.56, p<.001)과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N=181)

Steps	Direction	B	β	t	p	Adj. R2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Emotional intelligence	.61	.60	10.11	p<.001	.364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Clinical competence	.75	.71	13.83	p<.001	.517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Clinical competence	.58	.56	9.02	p<.001	.560
	Emotional intelligence	.27	.26	4.19	p<.001	

Sobel test : Z=3.88(p<.001)

감성지능($\beta=.26, p<.001$)이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6.0%였다. 3단계에서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분석에서 감소하여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Z 점수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18], 본 연구에서는 Z 값이 3.88($p<.001$)로 유의하였다(Table 5, Fig.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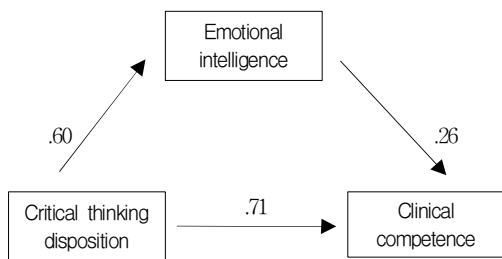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4. 논의

본 연구는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3.65점(범위 1-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간호과정을 제외하고 같은 도구로 입사 1개월차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과 Lee[15]의 연구 3.97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

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12개월 미만 실무경력을 가진 신규간호사가 대상으로 한 Kim과 Park[2]의 연구 2.85점(범위 1-4점, 5점 환산시 3.56점), Shin, Lee, & Lim[4]의 연구 2.83점(범위 1-4점, 5점 환산시 3.53점)과 유사하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16]의 연구 3.63점(범위 1-5점), Kang 등[17]의 연구 3.57점(범위 1-5점) 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는 졸업직후 입사한 병원에서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12개월 신규간호사 보다는 임상수행능력이 조금 낮고, 4학년 간호대학생 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임상수행능력은 4년 학부 과정을 완료 후 아직 병원에서 근무 경험이 없는 대상자로 간호교육에서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학습성과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입사 후 신규간호사가 되면 다시 수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재교육기간동안 많은 갈등과 부적응을 경험하며, 재교육비용으로 의료기관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사 전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적용 후 입사 1개월 후에 그 효과를 본 선행연구[15]에서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간호교육과 임상실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상 실습시 간호대학생의 직접 실습기회가 줄어들므로써 그 대안으로 시뮬레이션 실습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시뮬레이션 실습시 임상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실성 있는 시뮬레이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부과정의 시뮬레이션 학습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었고, 시뮬레이션 설계요소가 학습성과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18] 효과적인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학습목표에

따른 시뮬레이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습 지침서 구성에 있어서도 임상 현장지도자와 협력하여 최신 임상 현장을 반영한 지침서를 토대로 임상실습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현장에서는 신규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1 멘토를 두어 발전단계별로 임상실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육과 교육비용, 인력보장 등의 재정적 지원으로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 하위영역을 보면 간호교육/협력관계, 대인관계/의사소통이 가장 높고, 전문직 발전, 간호기술, 간호과정 순으로 간호과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 이상 임상실습을 시행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 대인관계/의사소통, 교육/협력관계가 가장 높고, 전문직 발전, 간호기술, 간호과정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간호과정 측정 항목을 제외하고 입사 1개월 차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한 선행연구[15]에서 전문직 발전이 가장 높고 간호기술이 가장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15]에서 간호과정을 제외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교육에서 1,000시간 동안 모든 교과목에서 간호과정 중심의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간호과정이 낮게 나타나 간호과정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은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하는 간호과정을 바탕으로 강화가 되는데 최근에 의료 환경은 학생들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할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17]으로 생각된다. 간호학생과 신규간호사의 실무능력을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20]에서 신규간호사가 간호과정에서 자료수집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할 수 있으나 자료의 해석과 평가를 통한 적용하는 단계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료의 해석 및 평가 관련 간호과정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성별, 전공만족도, 업무수행 자신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6]의 연구에서 성별, 문제기반 학습경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전공에 만족할수록, 업무수행 자신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나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감과 자신감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능력과의 상관계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12개월 미만 신규간호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에서 비판적 사고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능력 정도는 3.61점(범위 1-5점)으로 중간정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이나 암기식 교육은 지양하고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간호현장에서의 상황 파악능력을 기르고,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임상실습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21] 교수의 교수방법과 학습환경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간호교육현장에서 강의식 교육법이 아니라 PBL과 근거기반실무를 접목한 교수법[22]을 개발·적용하여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비판적사고 능력을 함양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에서 비판적 사고능력 의 하위 영역 중 신중성이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능력 중 신중성을 향상시켜 업무 수행 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여 임상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5].

임상수행능력은 감성지능과의 상관계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본 연구가 없는 상태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에서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이 정의 상관계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감성지능 정도는 3.70점(범위 1-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 타인감성이 해가 가장 높고 감성조절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결과[7]와 일치한다. 신규간호사는 임상수행능력 부족 등의 업무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타

의료진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성지능 중 감성조절과 감성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는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이 낮게 나타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판적 사고능력과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을 56%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감성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변수들 간의 관계와 매개효과를 본 연구가 없는 상태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3]에서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Lee와 Gu[19]의 연구에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므로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의 상황에 맞는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적용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적용을 돕고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지역에서 2개 종합병원의 졸업직후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임상수행능력을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졸업직후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상태로 간호 학사학위 프로그램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역량의 달성정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능력과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에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직후 신규간호사의 비판적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능의 향상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임상수행능력 향상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Han & Y. Park. (2013).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job involvement on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4), 462-469.
DOI : <https://doi.org/10.1111/jkana.2013.19.4.462>
- [2] Y. S. Kim & K. Y. Park.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field adaptation in newly graduat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4), 536-543.
DOI : <https://doi.org/10.1111/jkana.2013.19.4.536>
- [3] J. S. Park & S. Y. Jang. (2017). Development of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CPX) using Flipped Learning.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s Education*, 29(4), 987-1001.
DOI :10.13000/JFMSE.2017.29.4.987
- [4] Y. W. Shin, H. J. Lee & Y. J. Lim. (2010).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1), 37-47.
- [5] J. A. Park & B. J. Kim. (200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6), 840-850.
- [6] S. Lee. (2010).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tress of clinical nurses in local public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4), 466-474.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0.16.4.466>
- [7] O. S. Lee, M. O. Gu & M. J. Kim. (2015).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380-388.
DOI : 10.5762/KAIS.2015.16.1.380

[8]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9] C. S.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DOI : <https://doi.org/10.1016/S1048>

[10] P. J. Hwang.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11] J. Yoon.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12] W. H. Lee, C.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 S. M. Lim. (1990).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eonsei Nursing, 13*, 17-29.

[13] M. S. Choi.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4]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15] J. H. Park & M. H. Lee. (2017). Effects of a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 program on the ability of newly recruited nurses in execution of clinical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and turnover rat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191-199.

[16] M. S. Ki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504-513.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4.504>

[17] H. S. Kang, Y. Y. Kim & H. S. Lee. (2018).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3), 389-398.

[18] E. J. Hong & H. Y. Kim. (2016). The Impact of Simulation-based Learning in Undergraduate Courses on the Problem Solving and Clinical Competence for New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617-626*.

[19] O. S. Lee & M. O. Gu.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6)*, 682-696.

이 외 선(Lee, Oi Sun)

[정회원]



- 199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감성지능, 간호교육, 성인간호
- E-Mail : leeosun@daum.net

김 미 정(Kim, Mi Jeoung)

[정회원]



- 2009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5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5년 2월 ~ 현재 :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장애인 재활, 자살
- E-Mail : 01dkwnaak@hanmail.net